社會心理學硏究
Studies on Social Psychology
1983. Vol. 1. No. 2, 204 ~ 233

발달단계와 의존동기의 변화
—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윤 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아동발달에서만 주로 다루어오던 의존동기문제를 한평생발달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의존동기의 정의, 본질, 내용,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애착행동등 다른 개념들과의 비교등을 새로이시도하였다. 그 결과, 의존동기는 아동기까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사회적접촉 및 심리적 의존성의 측면에서는 한평생에 걸쳐 나타난다는 시사를 얻었다.그리고신체적·인지적 능력의 쇠퇴와 사회 경제적 지위의 하락이 일어나는 노년기에는 도구적 및 정서적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연령증가와 의존동기 변화와의 관계는 한평생을 통해 볼 때, 아동기의 높은 수준에서 성인기의 낮은 수준을 거쳐 노년기에 다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U형 곡선을 그린다고 예비적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또한 유아나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한 보다 체계적인 의존동기의 연구가 요청된다.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의존동기(dependency motivation) 혹은 의존욕구(dependency need)는 사회적 동기 가운데 하나의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Murray(1938)가 그의 명저 「Exploration of Personality」에서 도움추구 욕구(succorance need)로 분류하였고 그 이후 Whiting(1944)은 좌절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도움추구 행동(help—seeking as a reaction to frustra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물론, 의존동기는 갓난아이가 이 세상의 생활환경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시기에 부양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존동기와 행동특징은 인간의 성숙 및 학습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유능성(competence)과 독립성(independence)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사람이 성인이 되면 이와 같은 의존동기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독립성이 충분히 발달하게 되며, 또한 의존성은 감소하고 독립성은 증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과 그 압력의 영향까지도 받게 된다. 그렇다면 18 — 20 세이후 성인에 도달하고 나면 사람은 전혀 의존동기를 갖지 않고 오로지 독립성 내지 유능성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설사 청년 및 장년기에는 독립성으로 살아간다 . 손 치더라도 60 세 이상 노년기에 접어들어,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쇠퇴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역할상실을 경험하며, 눈앞에 있는 죽음이 점점 닥아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청·장년시절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의존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므르고 있을까? 사실상, 노년기에 이르러 개인이 처하게 되는 신체적·환경적 그리고 심리적 상황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무기력한 존재인 아동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대인관계에서도 역시 인생의 주기에 상응하는 행동과 동기가 나타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Kalish(1969), Neugarten (1968), Kuhlen (1967)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노년심리 학자들이 이와같은 노년기의 의존동기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의존동기 혹은 의존성은 그 표현은 하나의 용어로 간단히 하고 있으나 그리 간단하고 분명한 개념은 아니다. 특히 유아 및 아동기의 의존동기에 대해서는 몇가지 이론적인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 의존동기도 그 하부구조에서는 여러가지 종류로 세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부터의 의존동기는 어느 연령단계까지는 애착행동(attachment)과 혼동되고 그 구별이 모호하기 까지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의존동기 정의와 내용을 고찰하고 애착행동등 유사개념과의 관계를 밝히려 한다. 그런 다음 유아 및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의존동기가 어떻게 변화 혹은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고, 더 나아가 노년기에 생겨나는 의존동기와의 비교·

관찰을 시도하려한다. 특히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청·장년기와는 달리 어떤 형태이든 의존동기가 유발되지 않을 수 없는 노년기의 특수상황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존동기가 전 생애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가설적인 곡선현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1. 평생발달심리학적 시각

지능·성격·동기등 모든 심리학적 변인이 한평생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논의하려면 우선 평생발달심리학적 시각(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視角)에서는 특히 다음 세가지 발달관계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① 변화의 본질 즉, 발달과정의 연속성 대 비연속성(continuity-discontinuity), ② 변화의 방향(directionality), 즉, 키·몸무게·지능등이 유아기에서 성인기로 일방적으로 확대발전해 가는가, 아니면 감소·퇴행해가는가 하는 점, 그리고 ③ 심리적 변인의 변화가 상당한 장시간에 걸쳐 계속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세번째 장시간에 걸쳐 발달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문제는 또 두가지 다른 측면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장기 혹은 단기에 걸쳐 발달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어느 한 변인(예 ; 지각의 항등성)과 다른 하나의 변인(예 ; 동성의 어른을 동일시하기)이 같은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가지 다른 영역의 변인들의 변화와 발달이 장시간 지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있어서 상호 조절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평생발달심리학의 입장은 생래적인 변화과정과 환경적·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 역동성(complex dynamics)이라고 보고있다(Antonucci, 1976 ; Lerner 와 Ryff, 1978).

평생발달심리학의 시각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하나의 심리적 변인의 발달과 변화는 연령변인(Age), 출생동시집단변인(cohort) 그리고 측정의 시기변인(measurement) 등 세가지 변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세가지를 동시에 고려 하여야 될 것이다(예 ; Baltes 와 Nesselroade, 1973 ; Schaie, 1965, 1970).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의존동기와 애착행동을 이와 같은 완전한 평생발달심리학적인 이론의 틀에 맞게 논의할 수는 형편에 있지 못하

다. 이는 의존성에 대한 정의, 개념, 구성. 연구방법, 발달과정의 의미, 그 의존동기의 해결책 등에 관한 이론적 측면과 연구자료에 있어서 아직 불충분한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구성과 연구의 난점은 이미 의존성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Kalish (1979) * 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의존성의 본질과 그 형성과정을 밝히고 오직「연령증가」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고 나서, 노년기의 의존성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연구방향과 가정을 탐색하고자 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 글의 이론적 분석이나 논의의 폭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Ⅱ. 의존성의 본질

1. 의존성의 정의와 분류

일반적으로 발달·사회 그리고 성격심리학 교과서에서는 의존성을 "타인으로 부터 지원과 애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경향" (The dependency is the individual . tendency to seek support and affection from others)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 : Birren , Kinney Schaie와 Woodruff, 1981) 그러나, Bandura 와 Walters (1963) 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보다 분명한 학습이론의 용어를 사용하여 의존성은 "타인의 긍정적인 주의를 끌 수 있고 또 타인으로부터 적절한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련의 반응" 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Heathers (1955)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존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1) 도구적 의존성 (instrumental dependency): 어린 아동이 배고픔을 비롯한 신체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동이 음식을 얻어먹을 때처럼 어른의 도움을 받게 될 때, 궁극적인 주목표는 음식이며 도움은 다만 하나의 보조적인 중간 목표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도구적 의존성은 거의 누구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

* 1979년 11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노년학회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연차학술대회에서 필자와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이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2) 정서적 의존성 (emotional dependency):아동이 추구하는 목표가 "타인의 반응" 그 자체이며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한 도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감정적 의존성에는 재확인·애정 그리고 승락을 받으려는 세가지 욕구 (needs for reassurance, affection and approval) 가 표현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서적 의존성에 대하여 심리적 보상을 줄 수 있는 대상인물은 매우 제한 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행동을 의존행동이라고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파생된다. 이에 대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아동이 도움을 추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타인이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전체 행동"을 의존성이라고 정의한 Sears (1963) 는 4세 아동들의 의존성을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분류기준을 이용했다:

(1) 부정적 주의환기(negative attention seeking) ; 상황을 어지럽히거나, 혼란을 일으키고 또 반대와 저항을 함으로서 주의를 끌고자하는 행동을 한다.(예를 들면, 규칙이나 지시를 어기고 무시한다).

(2) 긍정적 주의환기 (positive attention seeking):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에 진행되고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시켜가면서 까지 그 집단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선다.

(3) 신체적 접촉이나 붙잡는 것(touching or holding) : 공격적이 아닌 방법으로 타인에게 접촉하거나 타인을 붙잡는다

(4) 가까이 있기(being near) ; 어느 특정한 다른 아이나 교사와 가까이 서 있거나 그를 따라다니려고 한다.

(5) 재확인, 안심, 위안을 받으려는것 (seeking reassurance, comfort or consolation):사과를 하기도 하고, 보호와 지도를 받으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허락을 요청하기도 한다.

(6) 관찰된 전체 의존성(total observed dependency) : 위의 5가지 유목에 속한 의존성의 총합이다.

2. 의존성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측면

어린이의 의존행동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감수성 (succeptibility) 은 모두 발달 과정을 그대로 따라 즉,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그 정도가 감소한다. 이때 사회적 영향(혹은 강화)에 대한 감수성이란 사실상 아동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성인에게도 여전히 존재하

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이와같은 동기는 물질적 강화보다는 사회적 강화에 대한 욕구 혹은 갈망을 나타내는 행동인데, 아동기의 의존행동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이름만 달리 붙인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타인으로 부터 사회적 보상이나 강화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한 것은 정상적인 성인이면 누구나 갖는 정상적인 행동이며,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오히려 하나의 사회병리적 성격 (psycho — pathic personality)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서적 의존성이란 동일한 「원형」(原型)에 대하여 그동안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의존성과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 사회적 강화에 대한 감수성이란 두가지 다른 이름을 붙여 온 것은 사실상 타당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논의된 의존성 연구의 이론적 접근경향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정신분석이론, 사회적 학습이론, 그리고 내재적 경향이론이 그것이다.

(A) 정신분석이론

이 주장은 본능이론의 일부이며, 개인이 다른 대상물과 사이에 갖게되는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때 대상물이란 그 대상 속에서 혹은 그 대상을 통하여 어떤 본능이나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는 대상물을 말한다. Freud의 주장에 따르면, 무기력한 유아는 자신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자기몸」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점점 발달해 감에 따라 「대상관계」(object relationship)를 파악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최초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모든 대상관계의 원형이 된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입장에 따르면 도구적 의존성(instrumental dependency)과 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은 이미 어린 유아기때부터 서로 얽혀져서 발달되고 있는 것이다.

(B) 사회적 학습이론

그런데 의존동기에 대한 개념은 학습이론의 틀에 입각하여 사회적 학습이론가들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고 다듬어졌다(Sears, 1975 ; Sears와 그의 동료들, 1953 ; Gewirtz, 1956, 1961). 기본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의존성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보살핌(care — taking), 그 가운데서도 음식공급(feeding)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2차적인 추동이 된다.

그런데 의존성의 발달에 관한 학습이론은 크게 두가지 주류로 다시 세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의존성이 2차적 추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려는 Neo-Hullian 학자들의 주장이며(Sears, 등 1957, 등), 둘째는 의존성을 제2차적 추동으로 보는 입장을 거부하고, 의존성을 일반적인 불안이나 정서유발의 효과, 모델링(modeling) 현상, 그리고 직접적 강화를 통한 조작적 조건학습의 혼합에서 나타난 산물로 보려는 입장이다(Bandura와 Walters, 1963 ; Gewirtz, 1961). 그런데 Neo-Hullian이 주장하는 2차적 추동의 주장에 따르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른이 나타나거나 그 어른의 행동에 의해 의존행동의 습관이 형성되고 동시에 2차적 강화도 성립되는 것이다.

(C) 의존동기의 내재적 측면

그런데 여기서 의존동기의 환경적 영향이나 학습이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그 내재적 측면(innate aspects)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3가지 방향으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 흐름은 의존동기를 오로지 인간행동의 긴장감소(tension-reduction)모델에 의해서만 설명하지 않고, 특히 동기적 개념은 인간을 특징지우고, 인간만이 갖게되는 몇가지 내재적이며 궁극적인 추동(inherent positive drives)을 포함한다고 보려는 입장이 있다(R.White, 1959).

두번째 흐름은, 비교심리학자 내지는 동물행동학자들이 보는 견해로서, 인간이하의 동물에서 초기의 애착행동 및 각인(imprinting)과 기타 주요한 사회화과정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Scott, 1963 등),

그리고 세번째는 Bowlby(1958)의 입장이다. Bowlby는 의존성을 획득된 2차적 추동으로 보려는 입장을 반대하고, 2차적 추동으로 간주되는 의존행동은 사실상, 아이와 어머니가 출생때 서로 묶여져 있던 생래적인 행동양식(inborn behavior pattern)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Bowlby(1969)는 아동이 어머니와 맺고 있는 독특한 정서적 연결(emotional tie)이 어떻게 발달·변화해가는가를 설명할 때, 정신분석학·동물행동학 그리고 자극-통제체계이론 (stimulus-control system theory)을 종합하여 논의하고 있다.

즉, 획득된 2차적 추동 모델과 구분하여, Bowlby는 애착행동과정을 주도하는 유기체가 본능적인 근거 혹은 선천적 - 생리적 특성 built-in characteristics)을 갖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어머니에게 매달리기, 쫓아다니기, 미소지우기 등과 같은 유아의 본능적인 행동들은 아동이 어머니와 신체적 접촉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하고, 또 어머니로 부터 양육행동을 유도해 내기도 한다. 이때, 모든 동물에서 새끼가 어미에게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Bowlby 는 "정서적 의존성" (emotional dependency)이라는 용어 대신에 "애착" (attachment)이라는 용어로 불렀다. 이와 같은 Bowlby의 입장은, 출생직후부터 18개월이 될 때 까지 유아의 애착행동을 장기적으로 관찰한 Schaeffer와 Emerson (1964) 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Schaeffer와 Emerson은 애착욕구는 하나의 원초적인 동기적 힘이며, 이 동기적 힘으로 말미암아 근접행동을 추구하게 되고(proximity· seeking)이러한 근접행동의 형태는 아동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발달관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3. 의존성·애착 그리고 유친동기의 비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의존성·애착행동 그리고 유친행동등 세가지 개념은 광의로 해석하여 모두 의존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정서적·사회적 의존성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종류의 친 사회적 행동 — 즉, 우정, 도움, 이타주의, 타인의 자존심 존중 등 — 이 의존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Ainsworth (1972)는 우선 의존성과 애착행동을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구분하고 있다.

(1) 특수성 (specificity) ; 애착은 동물이나 사람이 자신과 어느 특정한 타인 사이에 유지하는 감정적 유대(affectional tie)를 말하지만, 의존성은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며 촛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반응특성을 말한다.

(2) 지속기간(duration) ; 애착은 지속시간의 장단은 있으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다. 그에 반하여 의존성은 전반적으로 말해 일시적인 것이며 두사람 사이에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관계가 아니다.

(3) 성숙의 정도(level of maturity) ; 애착은 어느 연령단계에서나 있는 특징이며 의존성은 독립성의 반대로써 미성숙(immaturity)을 나타내는 것이다.

(4) 감정적 의미(affective implication) ; 애착은 강력한 감정, 열정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지만, 의존성에는 이와 같은 감정적 - 애정적 측면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5) 근접추구와 접촉유지 행동(proximity seeking and contact - maintaining behavior) ; 애착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에 대하여 근접을 추구하고 접촉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의존성의 경우는 이러한 행동이 어느 특정인에 대하여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친행동(affiliation) 역시 Murray (1938)의 욕구분류표에서 나온 동기인데, 타인과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우정과 신의를 지키며 타인의 애정이나 호의적인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유친동기는 Schachter (1959)의 불안과 유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후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유친동기는 "도움의 추구"나 "주의 환기"를 위한 행동이라기 보다 "군집성" (gregariousness) 을 강조하고 있다.

Ⅲ. 유아·아동 및 청소년기의 의존성

1. 의존성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의존행동이 유아기 및 아동기에 어떻게 형성·발달되고 계속 유지 혹은 소멸하는가? 이러한 점을 고찰하기 위하여는 먼저 유아및 아동기의 의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사회적 학습이론의 측면을 보면, 아동의 의존성 발달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허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아동양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통하여 아동의 의존반응이 유발되고 또 계속적으로 강화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부모는 아동의 긴장완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눈에는 제2차적 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의존행동에 대해 허용적이고 보상을 주는 양육적인 부모를 가진 아동은, 그와 반대로 의존행동을 허용치 않거나 처벌을 많이 하는 부모를 가진 아동보다 더 의존적이 될 것이

다.

그리하여, Sears, Maccoby와 Levin(1957)은 고전적인 육아형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아동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정을 면밀히 관찰했다. 아동편에서는 젖빨기·입술움직이기 파악반사등 조직적 반응을 하게되고, 어머니 편에서는 젖먹이기·목욕시키기·껴안아주기등의 반응을 하게된다. 이때 아이와 어머니가 하는 만족스러운 반응과 상호관계는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하나는, 어머니가 해주는 반응(즉, 다정하게 미소를 지우거나 몸짓을 하는 등)은 음식이나 안아주는 등의 일차적인 강화이외에 2차적인 강화의 성질을 띄게 된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아동과 부모 양측에 어떤 기대감(expectancy)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기대하고 있는 행동을 어머니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면 일단 좌절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울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의 욕구불만을 나타낸다.

(A) 보상과 처벌의 효과

주로 학습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의존성에 대하여 어머니가 보상을 많이 줄수록 의존성이 증가하고 처벌을 많이 할 수록 의존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어머니가 양육을 철회(nurturance withdrawal)하거나, 간헐적 보상(intermittent rewards)을 주게되면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보상을 주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Gewirtz 1954 ; Hartup, 1963). 만일 의존행동의 습관강도가 상당히 강하면, 부모의 거부나 간헐적 강화(혹은 처벌) 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결국에는 의존성을 오히려 높히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과 양육을 거부할 경우에도 일관성없이 때로는 거부하고 또 때로는 의존행동을 강화하는 경우만이 의존성이 증가하였다(Sears 등, 1957). 그러나 일관성 있게 의존성에 대해 처벌을 가하면 의존성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어머니의 처벌이 강하면 여자아이의 의존성은 금지시키지만,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오히려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Sears, Whiting, Nowlis, 와 Sears, 1953).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다음 두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떤 행동에 대해 보상이나 처벌을 받게 될때, 그 추동

의 강도는 처벌의 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즉, 만일 의존성이 항상 보상만 받고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면 그 의존성은 하나의 도구적 반응이므로 결코 "추동"의 성질을 획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너무 처벌을 심하게 받으면 의존성은 완전히 금지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최고 수준의 의존성」을 일으킬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간정도 수준의 처벌로 인하여 좌절이 충분히 일어나지만, 그 처벌의 강도는 의존반응을 완전히 금지시키지 않을 만큼 그다지 강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남자보다 여자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처벌이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동일시 과정과 같은 모-녀간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처벌의 강도가 객관적으로는 같더라도 여자아이가 주관적으로는 그 처벌을 더욱 심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처벌이 아들보다 딸에게 더욱 반응을 금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처벌과 보상이 유아에게 주는 영향의 또 다른 측면은 유아기에 젖먹는 데 대하여 느낀 좌절과, 후일 유아원에서의 의존성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Sears 등, 1953), 유아기에 우유먹이는 시간간격을 엄격히 하면 할수록 유아가 좀더 성장한 후에 의존성이 높아진다(Smith, 1958). 그러므로 유아기의 좌절경험이 계속하여 불안정감을 느끼도록하여 결국에는 의존성을 높히고 따라서 의존욕구를 동기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B) 과잉보호의 결과

흔히 아동양육에 있어서 과잉보호는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 (Levy, 1943). (1)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지나치게 안아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2)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먹여주는 등, 아이를 보살필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애취급을 하는 것; 그리고 (3) 어머니 곁을 떠나지도 못하게 하고 동무들과 어울려 놀지도 못하게 하면서 독립적인 행동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과잉보호적이며 동시에 지나치게 지배적이면 아이들은 의존적이 된다. 그런데 어머니가 과잉보호적이며 너무 허용적이면 아이들은 의존적이기 보다도 공격적이 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보호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머니가 보여주는 허용성(permissiveness)의 정도와 의존성에 대한 강화의 양식에 따라 그 아동

의 의존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결정된다.

(C) 사회적 관계의 결핍

사회적 관계의 결핍(social deprivation)의 영향은 주로 영아원 내지 고아원에서 자란 아동들의 의존행동에서 증명될 수 있다. Goldfarb(1943)의 주장을 보면 아동수용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주의와 애정을 갈구하는 욕구가 과도하다고 한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수용 아동이 약 5세쯤 되었을 때는 보통아이들보다 의존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보고도 있다. 이것은 만성적으로 애정과 양육 결핍을 느껴온 아동들이 무기력하게 되어 더 이상 의존행동을 추구하지 않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Seligman. 1975 ; 윤진·조긍호 번역, 1983)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요약한다면 아동의 의존성을 발달시키는데 부모의 양육방법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 되지만 부모-자녀관계의 또 다른 차원들-예를들면, 허용성과 엄격성, 거부 그리고 의존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강화 등이 의존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2. 유아기

의존성은 사실상 Yarrow(1972)의 주장대로 광범위한 발달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그 형태도 발달단계에 따라 각각 달리 표현될 수가 있다. 그런데 유아기(1-2세)에서의 의존성은 사실상 애착행동과 구분되기 어렵다. 따라서 유아기의 의존성은 애착행동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A) 애착행동의 전제조건

유아기 애착행동을 보이려면 우선 두가지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이미 생후 6개월 이전에 자기 자신과 외부 환경과를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자기 자신의 배고픔, 목마름, 춥거나 더움을 먼저 느끼고 그 후에 배부름, 갈증해소 또는 안락감이 뒤따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유아를 보살필 때는 접촉·운동·시각-청각적인 자극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라서 환경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즉, 자신의 반응에 의존하여 어떤 결과가 뒤따라 온다는 의존관계(contingency)의 파악이 중요하게 된다. 특히 생후 6개월 정도되면 자신의 신체 내부적 상태(internal state)의 변화도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라 사물을 반복해서 조작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관찰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환경세계와의 분화가 더욱 명확해지게 된다.

(B) 대인 의존관계의 발달단계

그런데 애착행동을 하나의 광범위한 사회적 반응의 발달이란 관점에서 논의할 때, 이와 같은 애착행동은 전반적인 대상인물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대상인물에게로 촛점을 맞추고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점점 더 분화·발달되어 간다. 즉, 격리불안(separation anxiety)이 생기려면 먼저 어머니와 같은 낯익은 인물에 대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몇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

첫째, 낯익은 사람과 낯설은 사람에 대하여 유아가 반응을 각각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selective responsiveness). 이 때 다른 대상이나 사람보다 어머니와 같은 낯익은 사람을 더 빈번히, 그리고 오랫동안 쳐다보는 수동적 반응을 하기도 하고, 낯설은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 있을 때 어머니 가까이로 적극적으로 달라붙거나 소리를 내는 등 능동적인 반응도 한다. 이와같은 선택적 반응은 이미 생후 13-24주일 정도에 나타난다(Gesell과 Amatruda, 1947 ; Griffiths, 1954).

둘째, 유아는 어머니와 같은 낯익은 보호자에 대하여 특정한 기대(expectancy)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괴로울 때는 안아주거나 달래줄 것을 기대하고 자신이 미소를 짓거나 옹알이를 하면 어머니가 다시 응답을 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유아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킬 어떤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되고 이는 "기본적 신뢰"관계 형성의 시초가 된다(Benedek, 1938 ; Erikson, 1950).

세번째는 낯선 사람과 격리불안에 관한 문제이다. 즉, 유아가 낯선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느냐하는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해온 생육사·환경 및 상황적 변인과 관련이 있다. 즉, 그동안 보살펴 준 사람이 몇명 있었는가, 현재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옆에

있는가 또는 낯선 사람의 접근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아동의 반응적인 환경변화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반응한다고 보여진다. 또, 애착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격리불안과 격리항거도 그 만큼 커진다.

(C) 환경적 영향의 역할

흔히 애착행동이나 어느 특정개인에게 촛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성숙에 따른 과정이지만 또한 환경적인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Yarrow (196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주변의 인물과 관계없이 단지 환경적인 변화 만으로도 격리항거(separation anxiety)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즉,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촛점을 맞추기 전 단계에 벌써 격리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인물과 헤어져서 불안을 느낀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 그 자체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3. 아동기

유아가 일단 아동기로 넘어오면, 아동의 의존행동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2세아동은 4세아동에 비해 (주의환기나 허락보다는) 신체적으로 접근하거나 애정의 추구를 많이한다. 그런데 나이가 4－5세로 증가할수록 주의 끌기와 허락·인정받기 등의 행동이 증가한다(Heathers, 1955). 그런데 유아원교사들의 평정을 토대로 분석한 Emmerlich 의 자료(1966)를 보면, 아동기에 걸쳐 개인의 의존성이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인생초기에 이미 "하나의 성격변인"으로써 형성된다. 특히 4－5세 아동반에서는 그렇지 않으나 3－4세 아동반에서는 정서적 의존성과 도구적 의존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 4－5세 경 되면 도구적 의존성과 자발성(autonomy)간에도 부적상관관계가 생긴다. 또 Kagan과 Moss (1960)의 자유유희장면 관찰결과를 보면, 3－4세의 아동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특히 성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6세 부터 14세까지 장기적인 발달연구에서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그 의존성이 더욱 변화가 적고 안정되어 있다. 또 성인의 인정과 주의

를 끌려는 경향이 높은 아이일수록 독립적인 아이보다 학교공부를 더 잘하려는 동기가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4. 의존성의 지속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의존행동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기 전체를 통하여 상당기간 존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존속의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여러갈래의 논의가 있으나 그 가운데 Cairns (1972)는 다음 5가지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 반(半) 자연관찰적인 장면에서 보면, 유아의 경우 의존행동이 부모가 옆을 떠나거나 타인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한 경우에는 의존성이 2－3세 까지에도 계속된다.

(2) 어느 한 발달단계의 애착행동은 성장후에도 그 개인차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Ainsworth, 1969). 이 아동들은 애착행동의 형태가 다를 뿐 의존성은 그대로 지속된다. 즉, 신체적 접촉과 같이 근접적(proximal)인 애착행동에서 쳐다보거나 미소짓기 등 원거리(distal)의 애착행동으로 바뀐다.

(3) Bell (1968)은 신체구조적－성숙과정의 요인이 의존성 수준의 차이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내는 의존성, 공격성, 유친성등 대인지향경향 (person－orientation)의 차이는 발생적－구조적인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전기의 아동이 가진 의존성의 차이가 성장후에 그대로 유지되는것이 과연 어느 정도 발생적－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가는 명확히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물／신체적인 상태와 사회적 경험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린시기에 관찰된 개인차이가 자동적으로 유지보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아동의 의존행동의 강도는 연령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하나 특이한 점은 타인의 주의를 끌기위한 행동의 대상자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3－4세 이후에는 자발성 (autonomy) 발달, 신체이동 (locomotion) 능력의 순조로운 발달에 따라 도구적 의존성이 아니라 정서적 의존성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의존대상이 성인에서 다른 동료아동으로 달라진다. 즉

1－2세 때에는 도움을 제공할 주원천이 성인이었으나 이제는 동료집단구성원과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게된다(Sears, 1972).

5.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는 문화적 압력을 부모, 교사 그리고 다른 어른들로부터 많이 받는 시기이다. 그리하여 성인을 즐겁게 해주려는 갈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기의 특유행동인 의존행동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성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독립적인 행동은 주로 두가지 원칙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가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인의 역할모델과 동일시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의존성과 성인기의 독립성과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청년기의 의존행동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일관성있게 의존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압력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허용적이며, 금지 효과가 덜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매우 심하게 의존적이었던 아이들은 청년초기에도 의존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Kagan과 Moss, 1960).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동의 가장 효과적인 의존대상이 어머니인데, 성장해감에 따라 그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분화가 일어나 더욱 다양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Takahashi (1974)는 중1학생(12－13세) 부터 대학생(21－22세)까지 일본여학생 776명을 대상으로 의존성의 단계를 연구한 결과가 매우 관심을 끈다. 이들은 중학생이나 대학생이거나 간에 어머니에 대한 강력한 의존동기 특히 감정적 연결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의 친구가 중학교때 보다 고등학교때에 더 중요해지며 대학에 와서는 동성의 친구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이성교제의 대상자가 더욱 중요한 의존대상자로 등장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의존성의 대상이 다양하고 그 기능이 분화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특정한 대상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우며, 또한 의존동기를 가진 청소년도 동시에 독립성을 계발해가는 점이다.

Ⅳ. 성인 및 노년기의 의존성

여태까지 논의한 유아기 — 아동기의 의존성은 비교적 개념이 잘 정립되고 실증적연구가 상당히 많이 수행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쉽고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기에 접어들면 이미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선회도(social desirability)등으로 인하여 의존성의 수준이 매우 낮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므로 성인기의 의존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의존성의 정의를 반드시 「도구적 의존성」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정서적 의존성」을 포함하고 그 내포적의미를 긍정적인 사회적 의존관계로 본다면, 성인이라고 하여 의존성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이르면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의존동기가 생겨날 여러가지 인생주기(life cycle)의 여건이 있게된다. 그리하여 최근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노년기의 의존성 문제를 거론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꾸준히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도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노년기의 의존성에 대한 새로운 탐사를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1. 노년기의 특수한 상황

연령이 60세를 넘어서고, 평생토록 종사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가족·사회·친교범위·경제수준·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된다. 우선, 시각, 청각등 감각 기능이 퇴화하고, 문제해결·기억능력등 인지적 능력이 점진적으로 쇠퇴해간다(Botwinick, 1978 ; 윤진 ; 1983).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고 혹자는 사회적 유리를 경험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거나 작아진다. 또한 정상적 노화과정에 따른 자아통합과 인생회고 과정, 그리고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자하는 갈망등이 증가하게 된다(예 ; Butler, 1963, 1975 ; Cumming과 Henry, 1963 ; Neugarten 등, 1968 등).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버림받아서는 안되겠다는 두려움(Weisman 1972)을 갖거나 자기 환경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함으로써 환경을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낸 피이드백(self—produced feedf—

ack)을 받아보려고 갈구하게 된다(Seligman, 1975) 그리고 어린 아동기에 경험했던 마음을 붙였던 사람으로 부터의 격리와 그런 사람의 상실, 환경에 대한 무기력감과 취약성등을 노년기에 와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므로 사실상 아동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의 정상적인 의존성

어떤 연령수준에 있거나 상관없이 비슷한 경향이 있겠으나, 특히 노인은 자기보다 더 젊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한다. 이는 자신의 긴장감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위협적인 환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어떤 만족을 제공할 사람을 주변에 갖고 있으려고 한다(Galdfarb, 1969).

그런데, Bleckner (1969)에 따르면, 노인에게는 네가지의 정상적인 의존성이 있다. (1) 경제적의존성은 생활비·연금등 경제적 측면의 의존을 말하고; (2) 신체적 의존성은 생물학적/신체적 기능의 퇴화로 인하여 걷기·앉기·식사마련·청소등 일상 생활에서의 신체적·물리적 의존관계를 가리키고; (3) 정신적 의존성은 중추신경계의 쇠퇴로 인하여 기억력·지남력·이해력·판단력등이 감퇴하므로 이런 측면에서 의존을 말하고; (4) 사회적 의존성은 친지, 사교모임등과의 사회적 접촉이 점점 끊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받으려는 도움을 말한다. 그런데 Brody (1977)는 또 하나의 의존욕구인 심리적/감정적 의존성을 제시하고 이는 위에 지적한 네가지 도구적이며 정상적인 의존성과는 달리 주로 가족이나 자녀가 충족시켜주어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심리적 의존성의 중요성은 노인의 주변에 "깊히 믿고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confidant)이 있어주기를 바라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Lowenthal과 Haven, 1968). 이렇게 본다면, 이와 같은 심리적 의존성은 그 기능이나 본질에 있어서 애착행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김태현(1981)은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부양·정서적 부양 그리고 서어비스 부양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를 측정·제시하였고, 한국갤럽 연구소는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의식 및 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보고한바 있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그런데 이와 같은 네가지 정상적인 의존성은 가족은 물론 사회의 각 병원·양로원의 의료전문가·사회복지시설등을 통하여 만족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어느 한가지의 의존성을 만족시키면 다른 종류의 의존성도 함께 해결되는 수도 많다. 예를 들면, 노인을 도와주어 일단 신체적 의존성을 해결해주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완화되고 역시 인지적 능력의 쇠퇴도 상당히 보완될 수 있고 타인과의 상호작용도 예전보다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의존성도 크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3. 사회유리설과 성격특성계속설의 쟁점

노년기에 접어들어 성격과 동기의 특성이 변하는가 또는 변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이 논의에 대해서는 윤진(1980)의 논문을 참조할 것〕. 예를 들면, Kuhlen (1964)은 연령증가와 더불어 성장-확장의 동기가 작용하고 동시에 불안감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성격특성이 변화한다고 보았다. 또 Cumming과 Henry (1961)는 노령에 이르면 사람은 누구나 사회에서 유리되려는 동기(social disengagement)가 있어 오히려 수동적으로 은퇴하면서 심리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Kalish와 Knudtson (1976)도 사회적·정서적 의존성이 노령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Munnichs (1981)는 이와 같은 Kalish와 Knudtson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회적유리를 통하여 어떤 대상인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해도 애착심과 애착행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회유리설에 대해서는 Maddox (1963)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활동설(activity theory)을 주장하면서, 노인의 경우 사회유리가 아니라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더욱 심리적 안정을 누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존동기의 변화 혹은 계속이란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장은 역시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1964)이 지적한 계속설(continuity theory)이다. 그들은 1950년대 말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서 40세부터 90세까지를 대상으로 장기 종합연구(The Kansa City Study of Adult Life)를 실시하였다. 그는 특히 70-

79세 노인들의 노년기 적응유형을 평생동안 지녀온 성격형태, 현재의 역할활동수준, 그리고 생활만족의 정도라는 세가지 변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8가지 유형을 찾아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움추구형" (succorance seeker)이다. 이런 인물들은 원래부터 의존동기가 높았던 인물들로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어내려고 갈망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활동수준은 중간이며 생활만족도도 중간정도이고, 자신의 주변에 정서적 만족을 충족시켜주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있는 한 자신의 생활을 그런대로 잘 영위하고 있다. 그들은 일생을 통한 성격특성(공격성·자아통합·방어성등)이 상당부분 노년기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특성·역할활동수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파악을 통하여 성공적인 노화내지 정신건강의 수준을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윤진, 1982)를 제작하는 등 노년기의 적응과 정신건강수준의 연구를 위한 몇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4. 가족관계의 특성

노인의 정상적인 의존동기를 자세히 검토해 볼 때, 그 충족을 위한 일차적인 공급원은 가족이 된다[가족 관계와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서는 윤진(1981)의 논문을 참조할 것]. 최근 수 많은 노년학자들이 노인의 의존성은, 직계자녀를 포함한 가족원들이 노부모를 "뒤바뀌진 부모의 역할" (reversed parental role)이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성숙성" (filial maturity)을 가지고 보살피므로써 충족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Bleckner, 1965 ; Brody, 1977).

그리하여 최근 노인과 가족구성원과의 유대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대표자의 한사람인 Bengtson과 그의 동료들이 한 일련의 연구를 보면(Bengtson, 1971, 1975 ; Bengtson과 Black 1973 ; Bengtson과 Cutler, 1976 ; Bengtson과 Kuypers, 1971) 노인과 가족원간의 공동연결의 유대가 매우 깊다. 그런데 특히, 가족원들이 노인에게 느끼는 유대보다, 노인이 자신의 자녀와 가족원들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유대가 더욱 깊다. 이때 노부모와 젊은 자녀간의 감정적 유대를 측정하는 지표의 내용은 이해·신뢰감·공평감·존경심 그리고 애정 등 5가지 차원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에 대한 의미구조를 측정한 국내의 자료에서도 그

유대관계가 강력하게 나타나고(김재은, 1974), 특히 노인이 될수록 젊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의 가족구성원을 가깝고 의미있게 느끼고 있다(윤진, 1980, 1981; 윤진과 조석미, 1980).

5. 의존성의 허용과 문화적차이

그런데 노년기에 갖게되는 특수한 여건과 자신의 의존성에 대하여 노인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신은 독립성이 미덕인 현대산업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의존적인 위치에 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보아 염려하고, 그리하여 오히려 더욱 의존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들의 지각에는 문화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과 같은 문화에서는,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4가지 정상적 의존성은 물론 심리적·정서적 의존성까지 모든 것을 가족이 책임져야 하므로 사회보장제도 실시와 생활의식이 다른 서구여러나라와도 그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만일 우리문화에서 전통적인 방식에서와 같이 의존성이 허용된다면 아무런 불안·죄의식이나 자존심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Shelton(1969)은 아프리카의 Iglo족을 예로 들어 문화적 차이를 논하고 있다. Iglo문화에서는 독립성이 반드시 바람직한 사회적가치는 아니며, 노인들은 아무런 꺼리낌없이 자손들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만일 자손들이 노인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비난을 받게되고, 선조들의 정신적 보호와 혜택은 물론, 현재의 물질적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6. 의존동기변화에 대한 하나의 가정

이상에서 우리는 현재 밝혀진 몇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기의 의존동기 및 애착행동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노년기에 의존성이 없거나 혹은 그 수준이 낮은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는 도구적 의존성과 정서적/심리적 의존성의 두가지 측면에서 따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도구적 의존

성의 측면에서 보면, 출생직후 유아기에 100%의 의존성에서 출발하여 성장과 발달과정을 따라 점차 감소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정도가 극히 낮아졌다가 노년기부터 다시 증가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서적/심리적 의존성의 측면에서는 세가지 방향으로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도구적 의존성과 마찬가지로 아동기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발달 과정을 따라 성인기에는 감소하고 노년기에 와서 다시 증가되는 추세가 있다. 두번째는 의존성을 하나의 성격특성변인으로 보아 일생을 통하여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높은대로, 또 낮은 사람은 낮은대로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의존성을 사회적 접촉을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욕구로 보려는 경우이다. 이러한 욕구는 누구나 소유하고 있고 만일 이러한 욕구가 없다면 사회병질적 성격의 소유자가 되므로 아동기-성인기-노년기에 걸쳐 누구나 소유하고 그 변화의 폭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정서적/심리적 의존성의 3가지 방향 가운데 그 어느 가정을 따르더라도,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해 온 이후에는 의존동기가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노년기에도 도구적 의존성은 물론 정서적 의존성의 측면에 있어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Murray(1935)가 인간의 욕구를 내장관계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로 분류한 이래의존성은 도움추구(succorance), 유친(affiliation), 그리고 양육(nurturance) 욕구등과 관련을 맺고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K.B.Madsen(1968)의 분류를 따르면, 16가지 동기(10개의 1차적 동기, 2개의 정서적 동기, 그리고 4개의 2차적 동기) 가운데 의존성은 2차적 동기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접촉동기 social-contact motive)에 속하게 된다. 물론 이것을 유아가 어머니에게 달라붙는 행동등을 예로들어 이를 일차적 동기라 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 학습이론이나 사회화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획득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Madsen은 사회접촉동기를 다른 사람으로 부터 성적인것 이외의 (非性的 : non－sexual) 다른 외부적 자극을 받으려는 동기이며, 그리하여 접촉의 추구(contact－seeking)와 접촉유지(contact－ho－lding)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위에서 전반적인 의존동기의 발달과정을 짚어본 후, 다음 몇 가지 측면을 결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1) 의존동기의 원천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그것은 일차적 혹은 이차적 동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의존성을 평생발달 측면에서 고찰하면, 의존성의 획득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이때 성숙이란 유기체의 행동능력이 순서대로 계열적으로 발달해가는 것이며(체계적 경험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학습은 (행동능력의 발달을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경적 자극과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순서적인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관련이 되는 것은 행동이론과 생물학적이론을 어떻게 조합시키느냐에 관한 것이다.

(2) 의존성은 물론 모든 사회적동기가 개인의 한평생에 걸쳐 형성되고 변화·발달해 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어느 일정한 시기, 특히 아동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면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연령범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인간의 사회적동기라는 측면에서 의존성을 논의 한다면, 인간간의 모든 관계와 연결은－즉, 우정, 결혼, 가족, 사회, 국가, 국제간의 무역, 외교와 조약등은－모두 상호의존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의존성이 생래적인 것이든, 학습된 것이든 상관없이, 개인의 행동과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4) 의존동기를 사회적 접촉동기의 하나로 취급하게 되면, 애착행동과 그 개념이 유사해진다. 이때, 애착행동이든, 의존행동이든, 그 대상이 생애를 통하여 바뀌어 간다. 유아기에는 부모와 보살펴주는 다른 성인, 아동기에는 부모 및 동료아이들 이었으나 또 점점 성

인이 되어갈수록 친구, 직장동료, 이웃, 정당, 종교단체, 친목단체 집단구성원 등으로 의존과 애착의 대상이 바뀌어 간다. 그러나 정서적·심리적 측면에서는 그 대상은 바뀌어가지만 의존성의 기능은 동일한 것이다.

(5) 이 논문에서는 매우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괄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장·노년기의 의존성, 애착행동등 기본적인 사회적동기 변화에 대한 국내외의 자료가 수집·보완되는 대로 새로운 「이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재은. **한국가족의 심리**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4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1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전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조사 1 차 보고서. 서울. 1981 .

윤 진 (a)· 노년기의 성격및 적응특성과 노인복지, **사회복지**, 1980 , **여름호**, 58 — 74 .

윤 진 (b): 가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의미구조 **한국심리학회, 1980 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구두발표, 1980 , 11 , 23 . 서울:고려대학교.

윤 진 : 가족관계와 노인의 심리, **사회복지**, 1981 , **겨울호**, 95 — 111 ,

윤 진, 노인생활만족도 척도 제작연구, **한국심리학회, 1982 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구두발표, 1982 . 11 . 22 . 서울 : 서울대학교. **학술발표논문초록**, P . 26 — 30 .

윤 진 · 노년기의 심리적특성,「**한국의 핵가족화와 노인문제**」세미나 보고서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윤 진· 조긍호 번역. **무기력의 심리**(Martin Seligman 원저 **Helplessness** San Francisco : W . H . Freeman , 1975) . 서울 : 탐구당, 1983 .

윤 진, 조석미.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1980 . **1** . 75 — 85 .

Ainsworth, M.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1969, *40*, 969-1025.

Ainsworth, M. Attachment and dependency: A comparison. In Gewirtz, J. (Ed.) *Attachment and dependency*, N.Y.: John Wiley & Sons, 1972.

Antonucci. T. Attachment: A life-span concept. *Human Development*, 1976, *19*, 135-142.

Bandura, A. & Walters, R.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Holt, Rinehart, & Winston, 1963.

Bell, R. A reinterpretation of the direction of effects in studies of socialization. *Psychological Review*, 1968, *75*, 81-95.

Benedek, T. Adaptation to reality in early infancy. *Psychoanalytic Quarterly*, 1938, *7*, 200-215.

Baltes, P. B., & Nesselroade, J. R. The developmental analysis of individual differences on multiple measures. In J. R. Nesselroade & H. W. Reese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Methodological issues*. New York: Academic Press, 1973.

Bengtson, V. L. Inter-ag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the generation gap. *Gerontologist*, 1971, *Part* II, 85-90.

Bengtson, V. L.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5, *40*, 358-371.

Bengtson, V. L., and Black, K. 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continuities in socialization. In P. Baltes and K. W. Schaie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3.

Bengtson, V. L., and Cutler, N. E.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Perspectives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In, R. Binstock, and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ch. 6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6.

Bengtson, V. L., and Kuypers, J. A.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the developmental stak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71, *2*, 249-260.

Birren, J.E., Kinney, D.K., Schaie, K.W. & Woodruff, D.S. *Developmental Psychology: A life-span approach.*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Bleckner, M. Social work an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with some thoughts on filial maturity. In E. Shanas and G. Streib (Eds.), *Social structure and the family: Gener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5.

Blenkner, M. The normal dependencies of aging. In R. Kalish (Ed.), *The dependencies of old people.* Ann Arbor, Michigan: Institute of Gerontology,University of Michigan-Wayne State Univeristy. 1969.

Botwinick, J. *Aging and behavior* (2nd ed.) New York: Springer. 1979.

Bowlby, J.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958, *39,* 1-24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N.Y. Basic Books, 1969.

Brody, E. Aging and family personality: A developmental view. In, Allman, L., and Jaffe, D. (Eds.), *Readings in adult psychology: Contemporary perspectives.* New York: Harper, 1977.

Butler, R.N.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1963, *26(1),* 65-76.

Butler. R.N. *Why survie?: Being old in America.* New York: Harper 1975.

Cairns, R. Attachment and dependency: A Psychobiological and social-learning synthesis. In Gewirtz, J.(Ed), *Attachment and Dependency.* N.Y. Wiley, 1972.

Cumming, E. & Henry, W.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s, 1961.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 1950.

Emmerich, W. Continuity and stability in early social development: II. Teacher's ratings. *Child Development,* 1966, *37,* 17-27.

Freud, S.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X. London: Hogarth, 1962 (Originally published: 1915).

Gesell, A., & Amatruda, C. *Developmental Diagnosis.* N.Y.: Hoeber, 1947.

Gewirtz, J. Three determinants of attention-seeking in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954, *19*, (2).

Gewirtz, J. A factor analysis of some attention-seeking behavior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56. *27*, 17-37.

Gewirtz, J. A learning analysis of the effects of affective privation in childhood. *Acta Psychologica*, 1961, *19*, 404-405.

Goldfarb, W. Infant rearing and problem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43, *13*, 249-265.

Goldfarb, A. The psychodynamics of dependency and the search for aid. In, R. Kalish (Ed.), *The dependencies of old people*. Ann Arbor, Michi gan: Institute of Gerontology, University of Michigan-Wayne State University 1969.

Griffiths, R. *The abilities of babies: A study in mental measurement*. N.Y.: McGraw-Hill, 1954.

Hartup, W.W. Dependence and independence. In H.W. Stevenson(Ed.), *Child Psychology: The Sixty-second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Study of Education*. Part 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Heathers, G. Emotional dependence and independence in nursery school pla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955, *87*, 37-57.

Kagan, J. & Moss, H. The stability of passive and dependent behavior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Child Development*, 1960, *31*, 577-591.

Kalish, R.A. (ed.) *The dependencies of old people. Occasional Papers in Gerontology, No. 6*. Ann Arbor: Institute of Gerontology, University of Michigan-Wayne State University. 1969.

Kalish, R. A. & Knudtson, F. W. Attachment versus disengagement: A life-span conceptualization. *Human Development*. 1976, *19*, 171-181.

Kuhlen, R. Developmental changes in motivation during the adult years. In J. Birren (Ed.), *Relations of development and aging*.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1964.

Lerner, R.M. & Ryff, C.D. Implementation of the life-span view of human development: The sample case of attachment, In Paul B. Balte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ur (Vol. I).* Academic Press, New York-London: Academic Press. 1978.

Levy, D. *Maternal overprotection.* N.Y.: Columbia Univ. Press, 1943.

Lowenthal, M. Fiske. Social isolation and mental illness in old age. In B.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Maccoby, E. *Stability and change in attachment-to-mother during the third year of life.* Symposium paper rea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inn. esota April, 1971.

Lowenthal, M.F. & Haven. C. Interaction and adaptation: Intimacy as a critical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68, *33*,(1). 20-30.

Maddox, G.L. Activity and morale: A longitudinal study of selected elderly subjects. *Social Forces,* 1963, *42,* 195-204.

Madsen, K.B. *Theories of motivation. (4th ed.)* Kent, Ohio: Kent University Press. 1968.

Munnichs, J. Symposium: Attachment and detachment in adults and older people, and introduction. A paper presented at the *XII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Hamburg, West Germany, July 12-17, 1981.

Murray, H. *Explorations of Personal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Neugarten, B., & Associates. *Personality in middle and late life.* New York: Atherton Press, 1964.

Neugarten, B.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Neugarten, B. Personality and aging, In J.E. Birren & K,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Ch, 26. New York: Van Nostrand and Reinhold, 1977.

Schachter, S. *The psychology of affili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 1959.

Schaffer, H. & Emerson, P.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chaie, K. W. A reinterpretation of age-related changes in cognitive structure and functioning. In L. R. Goulet & P. B. Baltes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1970.

Scott, J. The process of primary socialization in canine and human infant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963, *28*, 1, (Serial NO. 85).

Sears, R.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1951, *6*, 476-483.

Sears, R. Dependency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63, *11*, 25-65.

Sears, R. Attachment, dependency, and frustration. In Gewirtz, J. (Ed.), *Attachment and dependency*, N.Y.: John Wiley & Sons, 1972.

Reichard, S., Livson, F., & Peterson, P. *Aging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1962.

Sears, R., Maccoby, E., & Levin, H. *Patterns of child rearing*. Evanston, Ill.: Row Peterson, 1957.

Sears, R., Whiting, J., Nowlis, V., & Sears, P. Some child rearing antecedents of aggression and dependency in young childre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953, *47*, 135-234.

Seligman, M.E.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H. Freeman & Co. 1975.

Shelton, A. J. Igbo child-rearing, eldership, and dependence: A comparison of two cultrres. In R.A. Kalish(ed.) *The dependencies of old people*. Ann Arbor, Michigan: Institute of Gerontology, The University of Michigan Wayne state University. 1969.

Smith, H. A comparison of interview and observation measures of mother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8, *57*, 278-282.

Takahashi, K. Development of dependency in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1974, *16*, 179-185.

White, R.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1959, *66*, 297-333.

Schaie, K. W. A general model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problems. *Psychological Bulletin*, 1965, *64*, 92-107.

Whiting, J. The frustration complex in Kwoma society. *Man*, 1944, *115*, 140-144.

Weisman, A.D. *On dying and denying*.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1972.

Yarrow, L. Seperation from parents during early childhood. In Hoffman, M. & Hoffman, L.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Y.: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pp. 89-136.

Yarrow, L. Attachment and dependenc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Gewirtz, J. (Ed.), *Attachment and dependenc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2.

Ziegler, E. Research in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retardate. In Ellis, N. (Ed.),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mental retardation*. Vol. 1, N.Y.: Academic Press, 1966. pp. 77-108.

ABSTRACTS

DEPENDENCY MOTIVATION : A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Yoon, Gene H.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literature on dependency motivation was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life-span development. The definition, nature, content and some controversial arguments on dependency were discussed. The traditional notion of dependency decrement and independency increment with maturation and develop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was questioned. Especially, the reappearance and/or increment of instrumental and emotional dependency in aging is clearly suggested. Therefore, the U-shape curvilineal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the degree of dependency is proposed. However, the continuity of dependency through the life span as a personality trait or a habit is also discussed. It is also proposed that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udies on the change process of dependency with the elderly, not with infants or young children, are needed.